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서론)

나는 자주 사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 때마다 많은 대답들을 해 주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또 다시 물어오곤 합니다. 사실상 사역의 주체이자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소한 것까지 "이것만이 정석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목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 고침과 각종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 주를 이루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변론으로 교회를 세워갔던 바울의 초기 전도여행 때를 돌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각종 이단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싸울 것을 권면했던 초대교회의 말기 상황의 모습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당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심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의외로 많은 이들은 복음의 다양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병 고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로 변론하는 것을 죄악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스스로 지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 온 각종 누룩들에 대하여 둔감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사역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은 때때로 주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성경보다 칼빈이나 웨슬레의 신학적 사고를 더욱 높은 위치에 올려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건전한 신앙을 보장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건전한 교회관, 성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신은 언제(날짜와 시간)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을 변화시킨 말씀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의 시간과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다른 이들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고정관념은 결국 구원의 시간과 성경을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교리까지 만들어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베드로처럼 닭이 울 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와 같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지 못할 때 빌립과 같은 이들이 와서 성경을 풀어 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믿는 이들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을 하다가 주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다가, 또 어떤 이들은 무심코 걸어가다가 주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이 같은 다양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역자가 스스로 이 같은 복음의 다양한 사역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스스로 큰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오히려 큰 저해요인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역의 기준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다룬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기준들을 무시하고 사역을 시작한다면 그분 분명히 많은 난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목양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 펼쳐질 내용들을 통하여 사역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도자의 기본적 자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음이니(디모데전서 1:12)

한 해에도 수천, 혹은 수만의 사역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신학교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사역자들을 배출해 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광고를 하고 자신들의 신학교로 와 줄 것을 홍보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름에 화답하듯이 입학하고 열심히 사역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모두 사역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자가 되어 있더라도 대부분은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의 사역들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들이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를 종교라는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오히려 복음의 빛을 가리우는 일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소명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1. 지도자의 소명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날의 사역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소명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가장 위험한 사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역자의 자격을 논함에 있어서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으며, 어느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묻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사람들은 자신의 지명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가짜 학위라도 명문으로 일컬어지는 신학교를 대상으로 돈을 주고 사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과연 사역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처럼 명문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단에 속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사역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구약성경에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았다는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왕하 9:1). 그리고 엘리야가 그의 생도였던 엘리사에게 그 사역을 위임했던 사실을 생각하면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을 전혀 부인할 수만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훈련도 필요하고, 자질도 있어야 하고, 많은 지식과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는 더 이상 사역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즐겨 사용합니다. 분명히 그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부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가 과거에 지도자로서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40 세가 되던 해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고, 자신들의 민족의 문제에 관여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집트로부터 도망을 해야 했고, 광야에서 40 년 동안을 목자로서 지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지도력을 훈련 받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를 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가 목자로서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집트에서의 일들을 거의 잊어갈 무렵 80 이라는 나이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늙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에게 항변을 해보지만 주님은 그를 쓰셨고,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일컬음을 얻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버린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세울 자를 기름을 붓는다고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집에는 훌륭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늙름하고 용모가 수려했던 엘리압, 그리고 아비나답, 삼마 등 일곱 아들이 모두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양을 지키고 있었던 다윗을 불러 기름을 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삼상 16:7).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스스로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제자가 된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에게 얼마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했고, 수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신앙을 보이려고 했으며,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면 자신도 따라 죽겠다고 말했던 자였습니다(마 26:35).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를 하면서 배반하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은 쓰임을 받을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자 오순절날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그는 사역자로서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사역자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비록 3 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역자는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소명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을 만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음이니"(디모데전서 1:12)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들의 첫 머리에 그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소명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사역자의 조건을 세상 학문의 배경에 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때 우리는 이렇게 답해 주어야만 합니다. "소명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역대 주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았던 자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만한 자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기준에서 사역자를 평가하려 한다면 우리는 스펀전, 무디, 존 번연과 같은 분들의 책을 버리고, 또한 사역자로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단 한번도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2. 지도자는 성도의 인격에 대하여 간섭이 아닌 인도를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개역 성경에서 "양무리를 치라"(벧전 5:2, 요 21:16)는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서 무서운 누룩으로 발전되어진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지도자가 군림하는, 즉 다스리는 형태로 발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먹이라"(feed)는 말씀으로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지도자들이 양무리들을 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무리를 치는 것은 오직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역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목자였던 아벨과 다윗, 그리고 모세에 대하여 양을 지키는 자(keeper)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목자는 예수님이시고(요 10:11,14), 지도자라는 것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 자 즉 청지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인 성도들을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교회의 소유가 목사나 성도들의 것이고,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어 서로 다스리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성경이 가져다 준 누룩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성도들에 대하여 결코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을 보이고 앞서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벧전 5:3). 이러한 지도자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지도자는 거짓 진리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사역의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역시 거짓진리를 분별해 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나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교회를 위협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이 참된 것처럼, 참된 것이 거짓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수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전통과 유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사탄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도 사탄적인 전통과 유전들을 참된 것으로 위장하고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태양신 바알의 축제일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둔갑시키고, 이집트 여신 이스터의 축제일을 부활절로 둔갑시켜 숭배하도록 만들고, 바벨탑의 영향을 받아 세운 종탑들을 교회마다 세우게 하고, 고대로부터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던 십자가를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어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지도자라면 당연히 그러한 거짓 진리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지도자가 우유부단한 자세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결국 사탄의 노리개로 전략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는 자입니다(요 10:11). 물론 이것이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목양을 일을 하는 지도자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짓 진리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다면 우리의 양들은 모두 이리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도자는 거짓진리에 대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방어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4. 지도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더욱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구경꾼 신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지도자는 그들이 교회에 잘 출석하고 헌금을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라가야 할 뿐만 아니라(히 5:13,14),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게 될 날들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심지어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들조차도 이러한 방법으로 가르침으로서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의 필요에 의해 움직일 것만을 주문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성도들을 더 이상 꼭두각시가 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그들은 아무런 보상도 얻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선물 gift)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교회 안에 누구도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의 역할은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분별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획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들을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교회는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서로 함 몸을 이루는 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지도자의 지도력(영향력)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이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을 통하여 실패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 중에 대표적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였지만 결국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자입니다. 기드온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어 용사 300 명으로 십 삼만 오 천명을 이긴 자였지만 그의 나태함(삿 8:27)은 결국 그의 아들 70 명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상황으로 치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결코 나태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결국 패망으로 치닫게 만들 것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가 곧 교회와 성도들 개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언제나 근신하는 자세가 없다면 그는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6. 지도자에게 있어서 고난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겪어지는 일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훌륭한 지도자가 된 자가 있을까요? 저는 주저 없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지도자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넘겨보지 않은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어찌 병들어 보지도 않은 사람이 병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비록 인생에 있어서 매우 쓴 것이지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40 년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세월이 없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사울의 의해 쫓겨 다니던 시절이 없이 그의 위대함을 이야기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통곡이 없이 그가 주님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매와 투옥을 경험했다는 바울이 그러한 과정 없이 그의 위대한 서신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밧모 섬에 유배되어 아시아의 일곱 교회로 보내진 요한의 서신은 어떤가요?

우리는 지도자가 당하는 고난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획에 의해 의도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고전 10:13).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과정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참 된 지도자는 찾아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저마다 자신이야말로 참된 지도자라고 소리를 내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 된 지도자는 오직 주님에게 속한 자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충성스러운 자가 참 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주님의 의해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 1:23)

오늘날 우리는 우후죽순처럼 세워져 있는 교회당의 종탑들을 보면서 과연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인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히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토록 교회가 많은데 과연 또 다시 교회를 시작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회의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 모두 결혼을 하는데 나도 결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 다양한 형태의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그분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약교회 안에 거대한 집단으로 모여서 예배한 흔적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령 베드로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3,000 혹은 5,000 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침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그 장소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흩어져서 가정의 형태를 이루었고, 그 교회들은 소수의 집단 형태로 발전해 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모습은 오래 전부터 가톨릭이 사용한 방법들로서 교회가 성전, 즉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의 예배당을 지어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통이 루터 이후 개신교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여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지는 순수한 교회들은 그들만의 예배당을 가졌던 흔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지하 무덤(카타콤)에서, 혹은 꺾박을 피해 산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결코 외형적으로 드러난 교회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가령 성도의 수가 많아지면 가정에서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빌딩을 얻어 모이게 되는 것이고, 더 많아지면 땅을 사서 넉넉한 공간을 가짐으로써 모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적당한 수준에서 지역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보고 그 과정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자.

1. 교회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에 따라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서 소명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필요에 의해 사역자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갈망하면서도 아직 마땅히 예배할 처소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교회를 세우면 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상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의 결정에 따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교회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파에 속한 교회들은 그들에게 목사 안수의 조건으로 교회 개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는 시작했지만 전혀 주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것이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는 사역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같이 하라(에베소서 5:24,25)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아내 될 자를 선택할 때 아무런 기준도 없이 여자이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아내를 고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으로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에 의해 시작되고 또한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2. 교회의 형태는 완전한 몸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단순히 집단 공동체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며 교제하는 곳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에 교회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가 곧 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고전 12:12-21). 이 말은 교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골로새서 1:18)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구조가 몸의 일부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팔, 다리, 때로는 전신마비이거나 혹은 식물인간의 상태에서도 사람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없다면 그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리가 죽으면 몸도 자연히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관련하여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을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머리가 없는 사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마다 모인 사람의 수를 자랑하고, 헌금액을 뽐내며, 교회의 규모들을 드러내려 하지만 실상 그것들은 자랑할만한 것들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몸의 모든 요소들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교회의 규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단 두 사람이 모여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수십만 명이 모여 예배를 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공적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분류되는 것이지 주님은 결코 그러한 생각조차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의 공급하는 것을 받아 서로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서 각 부분의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 주느니라(에베소서 4:16)

또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이라(에베소서 5:30)

주님은 교회를 설명하심에 있어서 사람의 몸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몸은 독립적이면서도 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 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같은 교리, 같은 성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고 정다운 친구가 되어도 우리는 그들을 같은 몸으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전도자들이 사람들을 현혹하여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한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벨탑도 바로 이러한 거짓 교리의 바탕 위에 지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은 종교인들을 모아 두고 다시 바벨탑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몸의 역할이 모두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몸이 모두 동일한 기능만을 가지고 일한다면 몸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손이면 어떻겠습니까? 모두 발이면 또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눈, 아니면 입...아마도 모두가 같다면 그는 얼마를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 개개인이 주어진 은사에 따라 적절하게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의 특성에 맞게 교회를 운영해 가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획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교회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특성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각기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듯이 교회는 성도들 개개인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다양함을 놓치고 만다면 결국 정상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매우 조급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 아이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어른이 되겠다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잉태되어 세상에 나와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과제는 얼마나 신실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빨리 성장해서 비대해 지는 것이 그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많이 앓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앓아가면서 자라듯이 교회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신실한 교회를 보십시오. 힘겨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많은 핍박과 환난, 그리고 스스로의 아픔들을 이겨내면서 정금 같이 단련된 모습으로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4. 충분한 기도의 시간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그 준비과정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과연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행 1:14).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시작과 관련하여 빌립보 교회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기도 처소를 찾다가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행 16:13). 그곳에서 바울은 전도를 하게 되고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신실한 교회로 인식이 될 만큼 아름답게 성장해 갔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작업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좋은 지역은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지역은 아무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들을 봅니다. 그러나 같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분들을 통하여 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왔던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언제나 효과적인 사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던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테네에서의 전도는 그를 매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행 17:32,33). 그는 당시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던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들과 변론을 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또한 많은 이들이 믿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다른 신들 가운데 한 분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결국 물질은 다 탕진하고, 육신은 지쳐서 고린도로 내려갔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자비량 사역에 대하여 말하면서 고린도에서의 일들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가 아테네에서 모든 여비를 소비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머물고 있었던 고린도는 사실상 매우 부패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인격에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는데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놀라운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전도 방법을 말하는 이유는 실제로 좋은 장소라고 하는 것은 좋은 문화 배경이나 위치를 말하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좋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장소로 신도시를 찾아 다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은 초신자들이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 성공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상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를 시작하려 한다면 좀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생각해야 합니다.

6. 지역 교회로서의 특성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역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효과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복음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복음적인 교회들이 세상 종교보다 성장을 하지 못하는 요인은 바로 이러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 차원에서 이해될 것이 아니라 보다 지혜로운 복음 전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회가 가진 특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한다고 나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마다 독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은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야만 합니다.

7. 협력을 얻을 자들과 교회들을 파악하고 협조를 구하십시오

대부분의 독립교회들은 다른 교회들과 협력을 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교회가 변질이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감독하는 목양자가 배도하는 일이 없다면 교회는 안전합니다. 어차피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주는 양식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간에 협력은 사실상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진리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모델을 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주님은 모델을 삼은 교회와 동일한 교회를 세우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자녀가 똑같이 자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슷하게는 자라겠지만... 서로 협력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다양한 방면에서 서로의 교회가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면 동역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역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고 당장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내가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그 때부터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어떠한 교회를 시작하게 될지를 의논하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훌륭한 모델이 될만한 교회로 성장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이론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어떠한 틀에 맞추어 운영하려 한다면 혼란만이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4.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주라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선포하라 하심으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로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됨이라(고린도전서 1:17,18)

감히 설교에 대하여 논한다는 사실이 쑥스럽습니다. 그것은 사실 나 자신조차도 설교에 대하여는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매끄럽고 부드러운 말과 회중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논리와 웅변을 겸비할 수만 있다면 보다 자신 있게 설교에 관하여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제가 설교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고 결심한 데는 설교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르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로 온전히 드러났느니라"(고후 11:6)

"그들이 말하되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고후 10:10)

우리는 설교가 말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결코 설교가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바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대변인 격인 아론을 내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그로서도 보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니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니"(출 4:10)

저는 설교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의 논리나 매끄러운 표현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때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여 장사를 하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말과 행동이 매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참말로 만드는 재주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교회 안에도 거짓 진리들을 참인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설교를 평가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사실들을 먼저 깨달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권능을 알아 보겠노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권능에 있기 때문이라(고린도전서 4:19,20)

설교를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가 아니라 그의 말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설교와 성경공부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preach)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teaching)은 가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골로새서 1:28)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와 성경공부의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가 굳이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동일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들을 향해 좀 더 유익한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한 내용을 들고 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설교를 하는 강단이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일까요? 저는 이 대답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강단은 너무도 많은 지식들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면 여지없이 그 주일에는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설교는 선포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설교에는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설교들은 대부분 듣는 자들에 대하여 설득하거나 이해를 시키려는 의도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과 징계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설교다운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들은 대부분 지옥에 대하여 말해야 하고, 심판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현대인들이 자기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들을 너무도 싫어하기 때문에 설교자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까닭에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선포를 중단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씀은 복음 선포(Preaching)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으니 이 복음 선포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졌느니라(디도서 1:3)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선포를 통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대신했던 바울도 역시 많은 이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성경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들이 선포의 일들을 중단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힘썼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은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선포에 비하여 가르치는 일들은 온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공부는 말 그대로 공부를 통해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해시킬 수도 있으며, 꾸준히 가르침으로서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듣는 이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나? 영벌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영접이나? 불신이나? 하는 결단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주 이러한 설교들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짐을 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빵을 나누었습니다(행 2:46). 그들이 그렇게 한 까닭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일 설교자가 복음의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은 채 설교를 마쳤다면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 안에는 반드시 복음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경고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매주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도록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교회 안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당연히 그들을 향해 말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얻어 구원받으십시오"

2. 설교는 상담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는 말합니다. "나는 강단에서 심방과 상담을 모두 한다" 이 말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상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상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아니십니까?(요 14:16) 만일 설교를 통하여 상담을 하려 한다면 이는 성령님의 활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성도들을 향해 언제나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 자신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어떤 위로를 받기를 소원하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역할은 매우 달라집니다. 만일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일들에 대하여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그는 차라리 설교를 듣기보다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확신을 잃어 가는 성도가 있다면 복음에 관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매우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에게 주어진 설교가 결코 상담을 위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설교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설교자들이 은혜가 충만하여 전할 때마다 마치 자신을 향해 설교한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설교자가 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이들은 각기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권능이 있어 양날 가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히브리서 4:12)

설교를 듣는 이들은 당연히 자신을 향한 경고를 듣는다는 자세로 임해야만 합니다. 만일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사소한 감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시험에 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설교는 설교 그 자체로 말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설교는 결코 상담일 수 없습니다."

3. 설교는 회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에서 금기 시 되는 몇 가지의 설교가 있습니다. 가령 물질에 관한 설교라든지, 단정한 옷차림, 경건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행동들, 즉 술과 담배 도박, 영화관 출입 등과 같은 것들은 교회를 고리타분하고 숨막히게 만든다는 이유로 설교하기를 꺼려 합니다. 그러나 만일 설교가 성도들의 죄

문제를 지적해 줄 수 없다면 무엇으로 그들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까? 만일 설교가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이 없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설교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적인 교회들에 대하여 매우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의 생활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방탕한 생활이 허용되고 또한 그것들을 적당히 눈감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것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교회에서나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설교는 결코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대상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의 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매우 심한 말로 책망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령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즐겨 사용하시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에 사도들의 모습을 볼까요.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행 2:14)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혼자 중얼거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을 놓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행 17:22) 그는 아테네 사람들의 미신을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대상들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설교는 당연히 회중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은 설교가 회중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자들과는 관계없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회중과 관계없는 설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전달하고,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 준다 할지라도 회중과 관계 있는 설교라야 만이 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회중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면 그 설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는 결코 자리에 없는 회중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4. 설교가 결코 신비적으로 보이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유명한 설교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높은 톤으로 혹은 지나치게 낮은 톤으로 설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신비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때는 많은 설교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좀 더 근엄하고 은혜스럽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약간 쉼 목소리로 설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요즘에야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아직도 그것을 은혜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설교자의 목소리가 쉰 상태이거나 지나치게 높은 톤으로 사람들의 귀에 거슬린다면 말씀의 전달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복음의 전달 효과를 줄임으로써 설교자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웅변조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평상시 자신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게 근엄한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의 수준으로 말하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설교가라고 생각되는 바울이 그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로 온전히 드러났느니라"(고후 11:6)

"그들이 말하되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고후 10:10)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사실을 봐서도 바울이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근엄한 모습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는 결코 신비적인 말투로 증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도 설교를 훈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설교자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구를 쓰셔서 전달하시는 이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설교는 결코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매우 탁월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매우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설교에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 보십시오. 그것을 듣는 순간 우리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지식을 드러내려는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지만 설교는 불신자들이나 경건치 못한 자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설교자는 많은 지식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간단하고 쉬운 말로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설교자들이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일 전하는 자가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자칫 엉뚱한 설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지식으로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자들은 전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중들에게 전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사용함으로써 듣기에 거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이들은 다양합니다.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무식한 자로부터 지식이 있는 자까지 교회는 고르게 사람이 분포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교자가 어려운 말을 씌으로써 듣는 자가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보다 큰 손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다 쉬운 설교를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더욱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설교가 반드시 성경 본문만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의 기본 뼈대는 반드시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진행해 감에 있어서 반드시 성경에 있는 것만을 예로 들어가면서 설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이나 경건치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성경보다는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을 고집한다면 그들은 아예 귀를 막아버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것(히 4:12)이기 때문에 성경만을 말한다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교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바로 설교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눈과 발을 예화로 들기에는 너무도 삭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설교의 재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는 과거보다 더욱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화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화가 성도들과의 생활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교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보다 현장감이 있는 설교의 재료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쉽게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설교 중에 예화를 돕기 위해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 나와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책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나 예화들이 설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비유를 들만한 사건들이 없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함에 있어서 보다 폭넓게 다양한 내용들을 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설교의 집중력을 흔들여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강단에 서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 밖을 나가면 방금 들었던 설교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예화들은 자칫 설교의 주제를 혼돈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화를 드는 것을 삼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단순하면서도 그 날 설교의 주제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예화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식으로 설교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만한 설교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설교에 방법은 없습니다.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듣는 이들이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연극적인 요소, 예화, 비유, 시청각 등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보다 열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들은 말씀들을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열린 예배를 지향하여 예배에 연극적인 요소들과 뮤지컬 공연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대하여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설교의 가장 기본 원칙인 선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억에 남는 예배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설교에 이러한 연극적인 요소들과 뮤지컬을 비롯한 각종 시청각을 동원할 수만 있다면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설교가 성도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수록 좋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선포자가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원고만을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주어진 원고의 내용을 읽어 가는 정도의 설교라면 듣는 이들은 매우 지루해 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설교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적인 설교라도 큰 은혜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설교가 믿음이 좋은 성도들만 앉아서 듣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계획된 설교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들을 가리켜서 Worship service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설교자에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듣는 회중에게 맞추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론

설교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날에 주어진 말씀에 따라 그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가에 따라서 설교자의 능력이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설교를 통하여 더욱 많은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5.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주십시오.

만일 저에게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상담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목양자로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에 큰 감명을 받고도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목회자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알고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사도행전 5:29 하)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나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나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라디아서 1:10)

우리가 상담을 함에 있어서 위의 성경 구절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상담자가 결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 혹은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목양자들이 상담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상담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은 결코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상담자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생각하지 않고 감정만 교류하게 된다면 그 상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상담 원칙에 관한 것들입니다.

1. 상담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상담은 결코 사람들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모든 상담의 최종적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담이 자신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면 그 상담은 그리스도인의 상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담의 결과는 믿음의 성숙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상담자는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고,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 단계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담자는 상담에 임하기 전에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담자는 반드시 자신의 입장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가 피상담자로부터 불쾌한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그는 신뢰를 더해 갈 것입니다. 오히려 상담자가 순간적인 반응에 의해 임기웅변으로 일관한다면 그는 잠시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를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담의 결론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상담자와 피상담자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중간중간에 언제나 인식시키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마 18:20). 만일 그러한 자세로 상담에 임하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 대화 도중에 절대 흥분하지 마십시오.

만일 대화 가운데 흥분을 하게 된다면 그는 이성을 잃고 제대로 상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흥분함으로 두 가지의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는 것이고(출 32:19), 또 하나는 가데스에서 반석을 두 번 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민 20:7-11). 특히 반석을 두 번 친 후에 주님께서서는 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던져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민 20:12)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는 그의 누이 미리암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모세의 기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감정이 매우 상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흥분하기에 충분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반석에서 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반석을 쳤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상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세가 그랬듯이 분별력을 잃어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반석에게 말하는 것이었지만 모세가 막대기로 반석을 치는, 즉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흥분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 들 것입니다.

상담자에게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목양자들이 이 부분에 실패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버려두고 자신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곳에서 진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하십시오. 결코 자신의 감정에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피상담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상담하는 자신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3.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훌륭한 상담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저에게 만일 그 대답을 하라고 한다면 피상담자에게 가장 적은 말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상담자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피상담자가 그들을 찾아오는 것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피상담자들은 상담자가 어떠한 말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사실도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오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상담자는 그들을 찾아 온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피상담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면 그 상담은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양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피상담자에게 주입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가 말하기도 전에 다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의 말을 막고 대신 말해주면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한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양자들은 주로 많이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듣는 데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양자들이 피상담자가 찾아왔을 때에 미리 해결책을 제시하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상담자, 혹은 목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듣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짐작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담을 흐트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피상담자는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상담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대답해 준 것입니다. 많은 피상담자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담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 그의 해답에 동의하고 그를 돌려보내는 것은 매우 훌륭한 상담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을 적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문제는 매우 쉽게 풀려질 것입니다.

4. 언제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힘쓰십시오.

이 주제는 목양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양자들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선호하는 책들과 사람들의 자료를 뒤적이고, 또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것을 볼 때는 언제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지식적으로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상담에 있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 아래서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상담은 대부분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인 문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상담자는 대부분 가정과 자녀, 물질과 사업 등 대부분 생활의 문제를 들고 상담자를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들이 결코 목양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목양자 수준의 삶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더욱 많은 고민을 안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부모나 선생님에게 상의하지 않고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부분 부모나 선생님은 학생의 입장에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입장에서 상담을 함으로서 그들을 꾸짖거나 나무라고 오히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찾아 온 아이를 더욱 고민스럽게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찾아 온 사람을 목양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듯이 말한다면 오히려 그는 더욱 큰 문제를 안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객관적이 되라는 말은 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환경을 이해하고 그의 능력의 정도를 감안하여 그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경을 들이밀고 "이대로 사시오!"라고 말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오히려 실족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5 장 3 절에서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는 말씀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독선적이고 강제적인 사람으로 비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 요긴한 지체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5. 상대를 자극하려 하지 마십시오.

상담을 하다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드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보고 상대를 자극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역에 실패하는 원인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담법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을 자극하게 되면 결국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오히려 논쟁의 장으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문제는 뒤로하고 결국 무익한 변론만을 일삼은 채 자리를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극을 받은 이는 자연스럽게 이성을 잃게 될 것이고, 이것은 그 불씨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갈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상대방을 자극시키게 되면 결국 실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족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귀는 어렵게 하면서도 헤어지는 일은 매우 간단하게 처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어진다는 것은 자칫 서로가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비진리와의 구별을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이 매우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상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상담자는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심판해서 구별해내야 하는 자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상담을 위해 찾아와서 먼저 논쟁이 될만한 주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를 자극하여 더불어 논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논쟁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자극적인 말들을 피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를 자극시켜 상담보다는 논쟁거리를 만들어 놓게 된다면 결국에는 더욱 좋지 못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6.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상담자와 피상담자들은 앉은자리에서 결론을 맺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며, 때로는 허탈감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결론을 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엉뚱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말로 하는 것과 현실에서의 문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상담자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결론을 내더라도 피상담자로 하여금 결론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 이유는 문제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상담자들은 상담을 해 주고 난 이유에 곤혹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자의 권면에 따라 생활에 적용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매우 나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상담자가 원망을 듣게 될 것이며, 자신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무능한 상담자, 혹은 목양자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는 것은 거의 도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잘 해결되면 매우 유능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권위도 세울 수 있는 것이지만, 자칫 잘 못하면 사역에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결론은 피상담자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상담자는 다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지혜의 눈을 열어주고 피상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다면 결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7. 모든 대화에 하나님이 함께 해 달라고 기도하며 결과를 맡기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모든 대화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기도를 하고 시작한다면 상담자나 피상담자는 더욱 긴장된 상태에서 대화를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진실만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상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마치십시오. 왜냐하면 상담의 결과도 역시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 문제에 간섭하시는 일이 없다면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일은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도우심이 없는 상담이나 문제의 해결을 기대한다면 그는 차라리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도우심 아래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을 모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의 대화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주님, 대화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셔서 문제의 해결을 돕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훌륭하게 쓰임 받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6. 무엇이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교회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오랜 정체 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또한 그 해결책을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몸은 반드시 성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많은 성장의 장애요인이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양자들은 그 일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지속되게 되면 교회는 병이 들 것이고, 결국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병이 들 수 있다는 이 말이 전혀 성경적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병이 들 수 있는 것과 같이 교회도 경계를 조금만 늦추면 반드시 병에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병의 근원은 부주의에서 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음식물 섭취, 또한 건강한 생각을 가지도록 대부분의 의사들은 권면합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요..."라고 말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권면한 이 말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은 몸에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고 몸에 유익한 것들을 적절하게 취하는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해로운 요소들을 제거하고 유익한 것들을 적절히 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주로 교회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 즉 건강을 해치는 교회 안의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교회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 교회는 수년 동안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교회는 매우 소망이 넘치는 교회였고, 또한 바른 복음, 바른 진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될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로부터 매우 위험한 말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이 정도로 성장을 했으니 우리는 성공한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매우 놀랐지만 그들이 더 이상 성장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 그 교회는 거의 해산이 되었고, 주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긴장을 늦추는 때입니다. 그것은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한 순간에 역전을 당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도 "이 정도면..."이라는 생각은 바로 사탄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기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게 이루어 놓은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해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이라면 교회의 성장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장성한 사람의 몸을 가질 때까지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예배당에 많은 숫자로 가득 채우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배당 안에 신앙적으로 젖먹이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곳은 성장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속히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 하고, 온 성도는 이 일들을 위해 더욱 힘써야만 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자라면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교회의 약한 부분을 찾아서 더 강하게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 교만은 성장에 최대의 적입니다.

무너지는 교회들을 보셨습니까? 그 교회는 과거에 매우 신실하게 시작했던 교회들입니다. 만일 주님 앞에 신실함이 없었더라면 주님은 그들의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리가 없습니다. 물론 진리가 없이도 외형적인 교회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더 이상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명히 주님의 교회로 시작하였는데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급기야는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낳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성장과 더불어 사탄은 더욱 강력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공격 목표가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을 심어 놓고 목양자로 하여금 스스로 권위를 가지도록 하며,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을 멈추도록 만들 것이며, 더 이상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결과는 명백한 것입니다.

때로 이러한 행동들은 "사역자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교회 안에 존재해 있습니다. 권위는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권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양자는 스스로 본을 보임으로서 권위를 세워야만 합니다(벧전 5:3). 그렇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펼쳐 놓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너희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라"(히 13:17)고 가르친다면 그는 분명히 순서를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역자가 자신의 종 됨을 알고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앞 선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깨닫도록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는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3. 교회는 새로 거듭난 성도들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고무줄 교회" 이 말은 제가 현대 교회를 비유해서 즐겨 쓰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교회의 성도가 많아졌다가 어느 순간에는 줄어들기를 반복하는 교회, 이러한 현상은 현대 교회들이 겪는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게을리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회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외형적인 치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며, 내부에 값비싼 물건들을 진열해 놓음으로써

사람들의 환심을 삽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 반하여 교회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의 특징은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교회의 성도들로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의 성도들로 채워지는 것은 진정한 성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은 교회 내에 사소한 불만이 생기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치장은 빠른 시간 안에 그들로 하여금 싫증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들을 붙들고자 한다면 새롭게 치장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더 많은 헌금을 강요할 것은 분명하고, 교회는 더욱 화려해 가지만 진정한 성장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교회 내에 새로 거듭난 성도들로 채워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전 성도들이 혼의 구원(Soul winning)을 위해 힘썼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데려 오는 방법으로 교회의 성장을 기대한다면 그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또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될 사람들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 처음부터 양육을 받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일꾼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가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때에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 거듭나고, 양육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교회는 이러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해 내는 것이 성장을 위해 매우 필요한 조건이 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4.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 성장은 멈추게 될 것이다.

교회는 영적, 혹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님에 의하여 불러모아진 자들의 모임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여전히 사람이 모인 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에 자연스럽게 조직과 질서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따르는 일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순수한 교회들에도 특정한 사람을 따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의 신실한 삶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우리는 누구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존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게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존경 받지 못하는 목양자가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를 감독하는 목양자는 당연히 존경을 받는 자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분히 존경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는 오직 주님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목양자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주님의 교회를 위임 받는 목양자를 무시하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시험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목양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회중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스스로 높아지려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자세들은 결국 사람 중심의 교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것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게 됨으로써 교회의 기본 질서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순수하게 시작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주님의 일을 하려 할 것이며, 결국에는 스스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들은 결국 주님의 교회를 사유 재산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며, 자신의 명예를 지켜주는 도구로 이용을 하려 들 것입니다. 목양의 일을 세습하고, 교회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지어 실족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곳은 더 이상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셨을 때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에 서 있게 된다면 그 교회는 성장을 멈추게 될 것이며, 설령 성장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교회의 주인이시며, 또한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5.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 성장을 멈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분명히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사랑을 교회를 통해 완성하고자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일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성령은 보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의 차원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마음이 통해야만 사랑을 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분명히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분명히 자신의 생애와 관계가 있는 사랑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 연인이 사랑하는 것, 친구가 사랑하는 것 등 모든 부분에 걸쳐서 사람들은 분명히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을 특별한 대상을 두고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들은 서로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서로 원수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힘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교회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들에게서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전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원수들을 결국 원수로 대함으로서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법정 소송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빈부나 지식, 그리고 명예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몸의 구조를 바로 이해하는 자라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몸의 약한 것이 더욱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고전 12:22). 그것은 곧 약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언제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주 넘어지는 자들에 대하여 무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는 그들을 끊임없이 일으켜주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일을 반복하면서 자랍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바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한다면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6. 일이 너무 많아 지치게 되는 순간 성장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분주하고 무엇인가 쫓겨 다니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어떠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자들은 극히 적으며, 설령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허탈감에 사로잡혀 오히려 무력해 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목양자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교회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 성장에 실패하고 있으며, 교회 성장을 이룬 목양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지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결국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유익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부분은 주님을 위해 그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일이 되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양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역시 주님과과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 혹은 경건의 시간(Q.T)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는 자를 과연 훌륭한 목양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면 그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토록 중요한 시간을 빼앗아갈까요? 바로 그가 안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가 사소한 일에 매어있는 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또한 건강까지 해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목양자들이 병원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언 듯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많은 일들로 인하여 병을 얻은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 병을

연음으로써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 자들입니다. 그것은 결국 지혜롭지 못한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나 피로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씀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묵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다른 이들의 설교를 가져다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말씀을 공급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묵상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양자이든 성도이든 언제나 자신의 몸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분량의 일, 그리고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의 성장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보다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지치 않고 맑은 정신으로 매사에 건강한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로 인하여 지지치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여 분별력을 잃게 만들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7. 교회가 성장보다는 교리에 집착할 때 성장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교리 위에 서 있는가?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많은 이단 교리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바른 교리를 가진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교회는 이 교리 위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다른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은 각 교파마다의 교리 위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려는 자들에게도 이것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바른 교리 위에 교회를 시작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리만을 가지고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 아무리 많은 성경공부를 한다고 해도 교회는 오히려 더욱 심각한 정체를 보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른 교리를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른 교리들을 무기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씩 다른 교리들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심각한 교리의 변질보다는 대부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나, 혹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하여 매우 집착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교회 안에 존재하며, 그들은 우리의 추상적 교리의 집착에 대한 거부감으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단번 속죄와 같은 명백하고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추상적 교리들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실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이러한 논쟁들을 자제시켜야만 합니다. 만일 논쟁의 대상이 될만한 문제가 생긴다면 차라리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요구하는 목양자는 학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학자는 풍부한 지식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그와 더불어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의 부모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의 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목양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도들의 부모와 같은 모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언제나 품어주는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생각이 조금씩 달라도 근본적인 삶의 기준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격려하고 안아주는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추상적 교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주님의 교회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8. 교회는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의 성장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 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과거에 많은 희생을 해왔더라도 그들이 희생을 멈추고자 한다면 그와 더불어 교회의 성장도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를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과거에 헌신했던 것을 자랑만 하고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성도가 아닙니다. 이 말이 매우 심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 말은 그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 모두 무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과거의 것을 가지고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목양자는 "내가 과거에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편안한 생활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감히 말하지만 그는 이제 목양의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목양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결코 주님의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가 편하게 쉬고 있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은 병에 들거나 실족해서 넘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만일 헌신을 해왔던 자가 "이만큼 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는 교회에서 매우 심각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사사건건 간섭하게 될 것이며, 주님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문제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더욱 헌신하게 함으로서 더욱 많은 일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양자나 성도들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헌신하도록 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9.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 성장을 막는 요소들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기도를 잃어 버렸을 때 교회의 성장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 없이 교회가 성장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성장한 교회의 목회자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교회 성장의 제일 첫 번째 요건으로 기도를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의 열쇠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원한다면 주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우선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의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모임이 성경공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기도가 지루하다고 생각하여 이름난 기도회로 정해놓고 그 시간의 대부분을 성경공부로 대신하려 합니다. 그것이 차라리 편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오래 출석하고 있기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전도할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외에도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모두 기도 모임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삶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교회의 성장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7.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시대에는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지도자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도 회중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시대에도 지도자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 시대에서의 지도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교회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거짓복음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마치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지키고, 거짓진리를 분별해 내며,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참된 지도자가 많이 나오길 바라며 또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딤후 2:21, 행 9:15)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울(삼상 15:17-23)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실패한 왕으로 취급되는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게 초대 왕으로 등극했지만 왕이 된 이후로 비참한 세월을 보낸 자였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 심한 고생을 하고(삼상 16:14), 평생을 왕위에 대한 위협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윗을 경계 대상으로 삼아 살해할 뜻을 품었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를 서슴지 않는 범죄를 끊임없이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울이 악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낫출 줄 아는 겸손한 자였습니다(삼상 9:21). 오히려 왕으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왕이 되면서 무너지는데, 이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봅니다. 사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울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22,23 절).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서기 앞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 시킬 것을 명령하셨으나 아말렉 왕 아각과 살진 짐승들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 시키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서 많은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외형적인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과정이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물질, 명예, 권세, 지식이 성도의 신앙 수준을 판가름하는 관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입니다. 가령 물질에 대한 개념도 율법시대에는 십 분의 일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수 억 원을 헌금했다 하더라도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그 외 각종 액세서리 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이에 하나님의 것을 수없이 도적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헌금과 봉사 활동이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맡겨진 순종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외형적 삶의 모양보다는 내면의 성숙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형적 삶의 성숙을 위해 노력한다면 점점 율법의 신앙에 사로잡혀 스스로 넘어지거나 한계에 부딪쳐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지만, 내면의 성숙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외적인 결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성숙을 위해 순종을 생활화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24 절).

민주주의라는 말은 백성이 주인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울 왕의 모습은 오히려 위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통치자가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독재권력을 휘두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도 매우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친히 통치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동안에도 그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 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할 때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대적할 때도 언어를 혼란케 함으로 인류를 흠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갈 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셨고, 친히 왕이 되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의 왕을 세우기를 열망함으로 사울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가장 작고, 낮음을 주장하는(삼상 9:21) 한 청년 사울을 직접 선택함으로 통치권을 가지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권을 유지하려는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사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약 1:15).

초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인정받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을 존경했고, 따랐으며, 심지어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롬 16:3-4). 유대인이었던 그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율법주의 사상을 뒤로하고 복음 외에는 전하지 말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결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만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분명히 합니다.

복음시대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분명해 졌습니다. 율법시대에는 몇 명의 지도자, 선지자, 왕들에 의해 통치하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서 직접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시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빌 3:20).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명령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셋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버림받았습니다(26 절)

사울이 말씀을 어긴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하여 청종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24 절). 그러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곧 대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 주인의 말에 불순종한다면 도전의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하듯이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약 3:1-12).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행 11:1), '육체의 마음 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고후 3:3),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 하느니라'(살전 2:13) 복음 시대에도 말씀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히 10:16-18).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는 사울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의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빌 2:5), 함께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빌 2:12).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행 13:21-23)

사도 바울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부터 바나바와 함께 파송 받아 1 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흠어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행 13:22)라고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전반을 들여다보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항상 살해의 위험 속에 평생을 보냈고, 넉넉하고 평안한 생활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언제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시 23 편). 과연 무엇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삼상 17:45-49).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누가 보아도 결과가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이 싸움에 끼어들어 싸울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삼상 17:26).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말하면서 물 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목을 베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타협을 요구하고, 때로는 행복을 요구합니다. 날과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 복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갈 4:9-11),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복음을 변질시키기도 합니다(골 2:8). 그들은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마치 참인 것처럼 거대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작고,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를 들고나서야 합니다. 다윗의 물 맷돌과 믿음이 무기였듯이 말씀과 믿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살전 2:13). 말씀을 세상 속으로 던져 거짓 복음으로,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새로운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뉘우칠 줄 아는 자였습니다(삼하 12:13).

그는 한 때 방심함으로 강간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삼하 11 장). 이후 나단 선지자에 의해 그의 죄를 지적 받자, 그는 평생을 침상이 마를 날이 없도록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시 6 편). 회개함의 의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는 회개의 본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이 고백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음 시대에 있어서 회개의 의미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발길을 천국으로, 죽음으로 향하는 발길을 생명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뒤에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행 2:38).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 속성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죄를 거듭하고 있다면 회개의 여부를 다시 한 번 진단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갈 5:22,23)를 맺어가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심(요일 5:12)이 증거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증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바울은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인격으로 다가옴을 재차 강조합니다. 구원의 증거가 없는 삶의 모습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지우듯이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으로 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요나단과의 우정이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요건 가운데 중요한 덕목은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인간 관계가 완만하지 못해서는 결코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살아 있을 동안에도 돈독한 우정을 과시했지만, 요나단이 죽고, 사울마저 죽은 후 왕위에 오르자 그는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의 가족을 찾았고 결국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돌보는 우정을 과시했습니다(삼하 9:9-13). 오히려 절뚝발이였던 므비보셋은 자신이 죽을 줄로만 생각했으나 다윗은 오히려 후대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절뚝발이요 신분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므비보셋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다윗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격 중에 변치 않는 우정은 단연 돋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전 생애 중단 한 번도 사람 관계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배반과 음모 속에서도 끝까지 신뢰함으로 훌륭한 동지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는 지도자들의 향방 없는 모습에 비교한다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자들입니다. 미천한 자일지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다윗은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제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결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최선의 사랑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원수까지 사랑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 5:44). 진정한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진정한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자임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는 우리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타내는 열매로 그들의 자질 내부를 볼 수는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그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부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열매를 맺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드립니다.

8. 초신자들을 대하는 자세

한 가정이 형성되면 아이가 생겨야 하듯이 교회는 초신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더욱 기쁨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으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장성해서 또 다른 자녀를 양육할 때까지 교회는 그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만일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 자연히 교회는 성장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것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경이 변하면 자연히 그곳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은 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교회의 회원이 되어 양육을 받은 교회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헌신할 것이며,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게 지키려 할 것입니다. 교회가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초신자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성숙한 성도들이 초신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그들은 보호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목양자들은 초신자들에 대하여 매우 성급하게 대합니다. 물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이 빨리 자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 성숙하게 되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거듭났다 할지라도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는 초신자라도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그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는 것이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아이는 가끔 어른들의 눈에 버릇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성경 지식을 조금 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려 한다면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신자들에게 목양의 일을 맡기지 말도록 권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딤후 3:6). 그렇습니다. 초신자가 비록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는 여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서 자라야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 스스로 자라도록 방치해 둔다면 교회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범위를 벗어나 이곳 저곳에서 지식을 더하고 믿음을 더하려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참 된 양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변에서 무능한 부모를 둔 탓에 자녀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능하더라도 부모로서 자격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무능한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초신자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초신자들이 교회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그들은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들을 보면서 결혼할 때는 철저히 부부 중심의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가 생기게 되면 그 가정은 철저히 아이들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역시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바른 진리 아래 바른 목회를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교회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될 때 교회의 관심은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운영체계를 초신자 중심에 맞추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함으로서 믿음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 중심의 운영을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에 교회를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건전한 교리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체질을 초신자들에게 맞추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며, 성장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2. 초신자에게 장래 그들이 닥칠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어려운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될 어려움들을 미리 말해준다면 이는 오히려 그의 성장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은 아프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들이 한 번 아픔을 경험하고 나고 반드시 변해 있습니다. 키가 자라든지, 지혜가 자라든지 어느덧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역시 많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들은 아이들이 아플 때에 "그래 너는 이 일로 해서 자랄 거야"하고 말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대부분 어린 아이를 부둥켜안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며, 때로는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든 아이가 빨리 치료되기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초신자들을 위로하게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남의 일들을 대하듯 "잘 될 거야"하고 관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만일 초신자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방치해 둔다면 그는 결코 교회의 지체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되더라도 그는 다른 초신자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대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초신자들에게 먼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고 속히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것은 그들을 더욱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분별 없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가령 부모보다 친구를 더 의지하고, 또한 선생님이나 연예인, 혹은 운동선수들을 좋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정을 뒤로하고 가출을 하여 그릇된 길로 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목사나 교사, 혹은 성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누가 가장 아이의 장래를 분명하게 책임을 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부모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있을 것같이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자녀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은 부모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을 져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말뿐이며, 또한 책임을 질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초신자들의 가장 큰 실수는 사람을 보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사나 성도들을 모델로 삼고 그들의 행위를 신앙의 모델로 삼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지만, 때로는 의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존재한 이단들이 가장 즐겨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모임은 언제나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한 모임은 주님의 바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만일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구원으로 만족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자매가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는 자신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교회는 그녀가 구원을 받는데 온 힘을 기울였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스스로 자라도록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지쳐서 구원의 감격조차 잃어버리고 깊은 침체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가 이제는 한 인격체라고 알아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면 결국 그 아이는 죽든지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 키워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구원이 취소되느냐 하는 신학적인 문제를 논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가 목양자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면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때로는 목양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거듭난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만일 그가 구원을 얻는 것에 머무르게 된다면 그는 오랫동안 침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지속적으로 젖을 아이의 입에 물리고 키웁니다. 그리고 점차로 단단한

식물을 먹게 하며, 심지어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란 성도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시기는 어린 아이 때가 아니라 소년기와 청소년기, 혹은 사춘기라는 사실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중요한 시기를 잘 못 방치해 두면 오히려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각종 사고와 반항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결국에는 그들로 인하여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목양자들이 이러한 성도들로 인해서 매우 고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의 책임일 수 없습니다. 교회 안의 거듭난 성도로 인한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목양자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돌보아야만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받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대답 이후에 주셨던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내 어린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2 번 반복)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양들의 상태로 있는 한 그들은 지속적으로 목양자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을 방치해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성도입니다.

5. 비판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초신자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판적인 시각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이단 종파들에서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기존의 교회들이나 바른 진리들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내용을 가지고 초신자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성공적이어서 우리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빠져 나오지를 못하는 경우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매우 신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에게 비판적인 눈을 갖도록 하는 것은 결국 그가 평생 바른 믿음 위에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느 곳에 완전한 성도들만 모인 곳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초신자가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성도들의 작은 실수를 결코 용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로 인하여 실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교회에 많은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신자들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것은 결국 교회에 큰 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초신자들이 성도들의 냉랭함이나 게으름에 대하여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들로 하여금 비판하지 못하도록 잘 다스려 권면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생각도 그들이 실망스럽다고 해서 같이 그들에 대하여 좋지 못한 말들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인상을 갖게 될 것이고, 그는 교회 안에서 그들과 한 몸을 이루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생각을 바꾸도록 도와 주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비록 허물이 많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초신자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초신자를 다루는 방법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계속되는 죄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초신자들에게 대하여 실망을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 죄와의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매우 안도하고 있지만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 자들입니다.

주변에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자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불안해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을 받았느냐?" "육신을 멸망을 당해도 영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살해도 구원을 받는 것인가?" "단번 속죄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느냐?"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은 성경의 더 많은 부분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가 죄와 더불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목양자들조차도 그들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신학적인 지식들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이 있다면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당연히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양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목양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누구에게 부여된 명령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성도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본을 보이도록 하는 것은 바로 목양자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목양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만일 목양자가 성도들의 건전하지 못한 삶을 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죄에 다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가르치십시오. 그것은 목양자에게 부여된 특별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그들을 교회 밖에 있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초신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흑시 일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실족하거나, 혹은 교회의 일을 그러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일을 하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구경꾼으로만 두게 된다면 오히려 나중에는 더욱 일을 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교회 안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를 다녀가는 신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초신자들에게 대하여 일을 시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욱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주님은 그에게 은사가 동시에 주어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목양자는 이를 재빨리 파악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은사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목양자가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맡김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너무 비중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초신자치고 매우 유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비중 있는 일을 맡기다 보면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일을 맡기다 보면 실수 하나가 교회에는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 있는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딤후 3:6). 그 까닭에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주어지게 된다면 교회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일, 예배 안내, 앰프 시설관리, 어린 아이 돌보기 등... 봉사의 일은 하지만 문제가 되더라도 교회가 치명적인 상황을 만나지 않는 일들을 맡긴다면 그것은 초신자들에게 매우 큰 즐거움과 더불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체로서 하나의 몸이 되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숙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될 때까지 지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십시오. 그것은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9. 목회의 도움을 위한 구조 정리

목회에 무슨 구조 정리가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조 정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성경에 기초하여 운영이 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성경대로 교회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당연히 구조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개 교회는 교회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적, 환경적,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기본적인 골격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기본적인 구조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기본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교회는 종국적으로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교회는 이 기본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성도들의 위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

교회 역사상 오늘날처럼 성도들이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지 못한 적이 있었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 때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관에 관하여 가장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의 구경꾼으로 앉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나 성도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저곳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라면 어느 교회를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매우 성경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주님의 교회를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1) 성도들은 서로 연합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롬 12:5) 이 말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서로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고전 12:20,엡 4:4,골 3:15). 이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또한 몸의 일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두 가지 속성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Universal church)와 지역 교회(Local church)로 구분합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성경에 주로 하나님의 교회(The church of God)로 표현된 교회로서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몸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신부로서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성경에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The churches of Jesus Christ)로 표현되어진 교회들로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 흩어진 교회들 각자가 하나의 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몸에 붙어 있을 때 진정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만일 자신의 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리된다면 그는 결국 죽게 될 것이고, 몸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면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며, 능력 있는 성도들로 양육할 수 있는 매우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의 몸입니다.

2) 그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도 명백하게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12:6,고전 7:7,벧전 4:10). 이 말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같은 일만을 하도록 명령되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많은 기도를 하도록 훈련합니다. 또한 전도가 습관화 된 목회자는 전도훈련에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양육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는 모든 힘을 가르치는데 쏟아 놓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균형을 잃은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모양은 다양하며, 각 지체가 하는 역할도 각각 다릅니다. 만일 모든 지체들에게 같은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눈에게 물건을 들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귀에게 말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발에게 어떤 사물을 보도록

훈련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방법으로 훈련하고 가르치려 한다면 힘이 들뿐만 아니라 몸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와 말씀묵상, 전도와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생활 속에서 습관화 시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병자를 일으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말씀의 지식이 있어서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리 전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똑 같은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많은 문제들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가진 은사(恩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목회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보다도 더욱 뛰어난 영향을 발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은사들은 분명히 교회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충분히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3) 그들은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을 지속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성장이 멈추는 모습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믿음의 어린 아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린 아이들로 가득 찰수록 교회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 가정이 생활 능력이 없으면서 자녀를 계속 낳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결국 다른 가정으로 양자를 보내야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교회가 어린 아이들로만 가득 차게 된다면 결국 그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의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교회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성도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최고의 목적과 목표는 단순히 그들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매우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혹은 거듭났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갓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다고 그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아무도 "예!"라고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젖을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나중에는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결국에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 할 때까지 그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바로 목회자가 알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린 성도들이 장성해서 스스로 묵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낳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낳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자세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2.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가르침의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시대가 바른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각종 쟁점(issue)이 될만한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교회들을 봅니다. 가령 바른 성경관의 문제라든지 교회관, 그리고 구원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고를 심고, 자신의 교회만이 바른 교회라는 인식을 심는데 주력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것이 가르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최종적인 목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방법은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 것인가요?

1) 하나님을 사랑(마음, 목숨, 뜻)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매우 당연한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평생 예배당 한번 짓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을 종종 만나고는 합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이 목회 하는 교회가 성장해서 큰 건물을 가지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목회자에게 교회의 건물을 지으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아마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는 그는 필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더욱 깊은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들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설계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일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게 된다면 그는 이미 종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거짓 목자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자신들의 교회가 더욱 많은 교인들로 넘치며, 더불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겠다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진정 자신이 주님께서 종으로 세워주셨음을 믿는 참 목자라면 그는 사심을 버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가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이론에 대하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2)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성도들간에, 그리고 불신자들을...)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성경에 "Charity"라고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Love"와는 조금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사랑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Charity"적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데는 조건이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사랑을 했을 때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러한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Charity"적인 사랑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쉬운 말로 짝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사랑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말도록 독려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목회자 자신이 이러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도 흔히 봅니다. 그것은 때로는 성도들에게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참 목자라면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또한 그것을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3.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도 없이 목표를 향해 간다면 그는 거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일단 아무 일이나 시작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교회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제자훈련(마 28:19,20)

이것은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교회에서 사용된 방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었지만 결국에는 이 방법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조직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조직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소수의 무리를 두고 목회를 하는 이들의 푸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거듭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직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한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의 성도수가 약 150-200 명 정도라고 해서 그 이상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억지 주장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사람이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을 수 없다고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건전한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자연스럽게 조직화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 있게 움직여야만 합니다(고전 14:40,골 2:5,살후 3:7). 그것은 먼저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또한 그 일을 위임 받은 목회자(고후 5:20,엡 6:20)의 지도에 따라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그 일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자들을 양육하지 못했다면 교회는 목회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허둥지둥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제자들을 양육했다면 일사불란하게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 양육은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만 하는 특별한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집회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말씀 선포, 찬양, 기도...).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상담이나, 교육에서 한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집회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목회자가 교회의 방향과 철학, 그리고 가장 필요한 성도의 생활을 말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 차례의 상담이나, 권면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교회를 찾을 것이며, 설교자는 그들이 문제를 만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주일 예배만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적절한 기도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더욱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기도 문제를 나눔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또한 공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함으로써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풀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각종 기도 모임을 통하여 배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인기 있는 모임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모임입니다.

또 하나의 모임은 특별한 집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반드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정체되어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집회를 갖는 것입니다. 외부의 강사를 섭외 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자주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집회는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3) 역할과 책임의 분담(회중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교회 안에서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목회자가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목회자는 설교와 기도 생활에는 익숙하지만 사회 생활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성도들과의 교제를 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 많은 성도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성도들에게 상담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많은 물질이 소요되는 일이 추진이 되었을 때, 목사보다는 성도들로 하여금 일을 맡기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들의 역할과 책임 분담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적인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은 회중교회의 형태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내심의 부족으로 그러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는 많지 못합니다. 오히려 담임 목사가 전권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것은 때로 성도들에게 많은 불만을 만들어 내는 요인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목사가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결국 교회의 일을 등한시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일을 맡김에 있어서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시행착오와 많은 문제점이 있게 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장래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일에 대하여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고 목사의 지시만 받는 수동적인 형태로 움직이게 된다면 교회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새로운 목사가 부임을 하게 되면 혼란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행 6:4). 그리고 집사들은 구제의 일들을 위해 세워졌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십시오(행 6:1-3). 그렇다면 교회의 남은 일들은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다른 성도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 일들을 하 줄 알았고, 교회는 날로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있는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4.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연결이다.

교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생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절반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생활을 통하여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1) 가정과 교회는 구별되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교회를 위하여 가정이 희생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가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역의 진행을 중단 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든 틀린 답입니다. 결코 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가정이 희생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가정의 문제로 교회가 주님의 일들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찌란 말입니까? 교회와 가정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보호를 받아야 하며, 또한 서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적당한 균형을 이루면서 질서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교회 때문에 가정이 파경을 맞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주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주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지켜야 할 가장 우선 순위에서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정의 안정이 없이 교회에서 헌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는 오히려 교회와 가정 모두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성도들이 건강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권면하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지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안정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뒤로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회에 헌신할 방법을 찾아내고, 또한 교회의 필요에 따라 봉사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교회와 가정이 적당한 조화와 질서를 유지했을 때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은사는 삶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전 12:1-12). 그것은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마음 속에 품어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은사를 지닌 성도들로 하여금 삶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에 실패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서로가 가진 은사들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지닌 은사들에 대하여 시기하는 일조차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신보다 조금 지혜로우면 비방을 일삼고,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면 오히려 사탄적이라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자세가 더욱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는 모든 은사를 통달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마다 가진 은사들이 있고, 그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그러한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더욱 특별하게 보이는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기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회자로 세움을 받은 것과 은사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가진 은사들을 최대한 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자신들의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과연 성도들이 자신들이 지닌 은사들을 충분히 삶에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3) 교회는 그들이 생활에서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을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성도들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방치해 둘 수만은 없습니다. 그들은 엄격히 보면 목회자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간단하면서도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양은 끊임없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목자가 양에게 양식을 직접 먹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양식, 즉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행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예!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직접 양식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때로는 과다 섭취로 문제가 일어나고, 때로는 영양 실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당한 양식에 적당한 운동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배가 고프면 먹게 될 것이고, 배가 부르면 먹는 것을 멈추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목회자는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또한 그 필요성에 대하여 가르침으로서 마치 양들을 넓은 풀밭으로 인도하는 심정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여도 그들은 말씀을 덮어두게 될 것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말씀을 직접 먹이는 것이 익숙한 성도들이라면 그들이 양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목회자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목회자가 문제를 만나 사역에 소홀히 하게 될 때 굶게 될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면 언제나 넉넉하고 배부르게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성도들이 스스로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모든 면에 있어서 유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그것은 목회자나 성도들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교회는 결코 다른 종교 단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의 종교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일반적인 종교와는 분명히 구분된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 오셨고, 또한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으며, 또한 친히 주인이 되셔서 관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각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일반적인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방법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1)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지하고자 하는데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장차 다가 올 세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장차 주님의 뜻 아래서 통치해야만 하며,

주님은 그것을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이 시대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가장 우선시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히 구별되는 것"(살전 4: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교회들이 기독교 문화, 혹은 에큐메니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다름이 없고, 또한 일반 종교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심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주님의 뜻을 외면하는 사탄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살전 5:16-18)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는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초적인 생활에 있어서 기쁨, 기도, 감사는 언제나 함께 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중요한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르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벧전 2:12-15)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이방인들이 교회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그들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진리에 대한 타협이나 교회의 폐쇄 같은 명령에 대하여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통치를 함에 있어서 그들의 권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교회가 들림을 받은 이후에 그 가운데 속한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삼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이 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또 하나의 가르침은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벧전 3:17)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 있어서 고난이 따른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빌 1:6). 그렇다면 당연히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견디기 힘든 삶을 살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주님의 뜻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당연히 그분의 뜻에 따라 존재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주님의 뜻이 무시된 채 사람의 생각과 의지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일반 사교 모임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교회의 최종 목표는 양적인 성장에 있지 않고 성도들의 성숙과 성장에 있습니다.

이 말은 자칫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양적인 성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장되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 없이 숫자만 늘어가고 있는 교회라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차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세상에 있는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구원과 관계없이 구제와 각종 사회 활동을 통하여 사람만 늘어가는 형태로 발전되어 간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교회로 출석은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만을 모아 놓고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교회의 역할이 끝났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장차 천국에서 통치할 자들을 훈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이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안전만을 믿고,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주님의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다스릴 자들입니다. 통치할 자는 당연히 더욱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성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성장이 훌륭한 통치자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가 든든하고, 그 토대 위에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는 장차 왕이 될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 목회에 있어서의 교육

목회에서 교육 분야를 제외한다면 과연 그 목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오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교육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연구하고,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은 기독교에서 가져 온 것입니다. 그렇다며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교회가 훨씬 앞 서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교육을 통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교육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환경과 분위기, 성도의 구성원,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원칙 아래서 현실의 상황을 잘 조화시켜 성도들을 교육한다면 매우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설교와 교육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와 교육을 혼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설교하는 강단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강단에서

설교되는 것은 선포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설교를 듣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교육(성경공부)은 설교와는 차이를 가집니다. 그것은 철저히 지식 전달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지식을 얻게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교육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결국 설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어렵고 복잡한 내용의 설교를 절제하는 대신에 부족한 부분들은 교육을 통하여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만일 어려운 주제들을 강단의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을 이해시키고자 한다면 자연스럽게 설교는 길어지게 될 것이고, 인내심이 없는 성도들은 지루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도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면 굳이 설교를 길게 할 필요도 없으며, 복잡하게 이해시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매우 단순한 내용의 설교를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 강단을 내려와서 각종 교육을 할 때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적인 문제나 논쟁거리들을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와 교육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목회자라면 설교를 할 때 매우 기초적인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자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심지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설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려 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또한 다른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잘 돌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두고 하는 것이지만 교육은 모인 사람들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차별화 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은 목회의 한 수단이다.

간혹 교회를 돌아보면 모든 운영이 교육에 맞춰져 있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교회의 역할을 제한하려 하는 이러한 모습은 때로는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교육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그 외에도 전도, 봉사, 상담, 기관운영, 기도회, 찬양 등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가 교육 이외에 어떠한 것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자칫 기형적인 교회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해 두어야만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목회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능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성경학교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교회가 성경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지혜로운 목회자라면 효과적인

교육을 통하여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회의 운영과 관련한 지식과 방법들을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단순한 지식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십시오.

책상 앞에 사람들을 앉혀 두는 것만이 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현장에서 직접 실천해 보이는 것이 더욱 효과를 높여 줄 것입니다. 가령 전도에 대한 교육을 함에 있어서 몇몇 성경구절과 영접시키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서 교육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서 직접 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형태가 지식의 전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교육의 형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교육은 더욱 많은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생활 속에서 교육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골 1:10).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는 것으로 멈추게 된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더욱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3. 다른 분야보다 교육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른 분야들은 강단의 설교를 통하여 충분히 동기를 부여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만큼은 계획 없이 실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식적으로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전도나 봉사, 헌금 등은 지식과는 관계없이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교육은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 없는 것처럼 계획 없이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주기적으로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제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범사에 근신하여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지 않는다면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벧전 4:7). 그 일을 위해 당연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점검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성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장면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기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일까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그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교회와 목회자의 인도를 따랐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셔 들인 경험이 없는 자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마치 장식품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교회 안에 이러한 이들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목회자를 속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속임수는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귀찮아질 것을 우려해서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주범이 마귀라는 것은 언제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영적으로 이들보다 더 뛰어난 통찰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도들의 행동을 살피고,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이 있는 자인지를 돌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2) 때로는 생활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의 변화는 성도들의 믿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직장을 잃었거나, 옮겼을 때,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실패했을 때, 집 안에서 누군가 태어나거나, 사망을 했을 때 등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작은 생활의 변화는 성도들에게 매우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것은 때로 위협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활에 변화가 오게 되면 그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이해해서 실족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곧 목회자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그들을 안전한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교육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변화를 겪는 성도들은 매우 훌륭한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교육을 위해서는 책상 앞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의 생활 속에서 변화를 보고, 적절하게 지도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가정의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교육과 가정의 안정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있는 목회자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육이 중단되는 이유들을 보면 가정에서 그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린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 부모가 교육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 어린이 교육은 할 수 없습니다. 중고등 학생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신앙 교육보다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교회에 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면 역시 학생들의 교육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장년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성경 공부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는 것은 서로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각 가정에 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배우고 싶은 사람만 오라는 식의 교육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가정이 교육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스스로 직접 방문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경로들을 통하여 그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충분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교육은 말 그대로 다양한 지식을 얻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것들은 교회의 전체 흐름을 주도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일 교육이 없다면 성도들은 어린 아이의 수준을 벗어 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성도들로 하여금 단단한 식물(말씀)을 먹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령 올바른 교회사, 바른 성경의 역사, 그리고 교파연구, 이단 종교, 상담, 전도의 방법적인 것들은 강단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담임목회자의 설교 강단이 아닌 교육 현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비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고 듣는 이들도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설교를 하는 중간에 다른 종교의 이단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설교의 전체 주제보다는 그들의 이단성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때로는 공격을 당한 종교 단체로부터 공식적인 항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이단 종교에 대하여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그들은 그 설교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그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민한 문제를 한정된 시간 안에 마쳐야만 하는 설교를 통하여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제들이 교육을 통하여 가르쳐진다면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배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육은 어려운 주제, 논쟁거리가 될만한 것들을 다루어 주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데 매우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숙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교회의 다양한 운영 방법에 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운영은 목회자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만한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준비된 일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훈련이 되어야만 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날 때부터 뛰어난 지도자는 없습니다. 날 때부터 뛰어난 교육자도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충분히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 일들을 위해 많은 시간도 투자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또한 일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나 교육을 통하여 교회의 운영을 배움으로써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교육들을 통한 훈련은 반드시 교회가 견고하게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운영에 관한 것들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교회 운영이 세상에서 운영하는 방법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일반적인 경영원리를 가지고 운영하지만 교회는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사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담임 목회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운영은 장차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의 장래를 위하여 성경적인 원리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양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목회자의 목회 방향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목회자의 목회 방향과 관련하여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성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래를 위하여 목회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담임 목회자의 비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비전이 성도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을 때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비전이 크지만 성도들의 비전은 작다면 목회자는 매우 답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눈에 욕심이 많은 목회자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혼치는 않지만 반대로 목회자의 비전은 작는데 성도들의 비전이 크다면 목회자는 때로 옹졸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영향력과 비전에 따라서 무리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부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를 낳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육은 바로 목회자의 비전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만을 교육의 범위로 한정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목회자의 간증과 더불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된다면 그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목회자의 사역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주님을 향한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교육을 위한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조직은 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지도자를 세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만일 조직이 없다면 결코 지도자는 양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절한 조직은 성도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엄청난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 곳에 모아 두고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조직은 성도들이 단계를 밟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1) 조직은 좋은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회 내에서 작은 조직들은 지도자 훈련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양성함에 있어서 경험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각 교육 기관들의 지도자들을 세움으로써 그들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교육할 대상들을 관리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생각함으로써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들을 키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시행착오에 대하여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훌륭한 지도자는 시행착오 속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혀 실패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다음 기회에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치명적인 실수가 없는 한 목회자는 그들을 잘 감싸주고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가장 큰 교육의 목표를 이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조직은 성도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성별, 신앙의 정도에 따라 모임을 달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다양한 모임들은 결국 성도들이 단계적으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하루 아침에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듯이 믿음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며, 이것은 조직은 그들이 적당한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손에서 자라다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를 거쳐 사회에 나가 스스로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결국에는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 사회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조직은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공급하고, 후에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조직은 단계적인 성장을 함에 있어서 매우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두고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없듯이 교회에서도 모두를 모아두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3) 조직은 교육이 균형 있게 가르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때 하는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적당한 조직을 갖게 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그들의 신앙의 수준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 과목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적절한 교육은 그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미적분과 같은 수학 과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만 숫자의 개념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장성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학문을 요구 받게 되면 그들은 이보다 더 어려운 것들도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과외를 해서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그들이 더욱 훌륭한 지식을 얻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균형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위하여 조직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11. 사역자를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역자의 영향력에 의해 운영이 되고, 또한 움직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직접 결정하기도 하며, 재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들은 오히려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기형적인 교회의 형태를 갖추도록 한 것이 사실입니다. 회원이 많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미자립 교회에서는 많은 문제를 낳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유도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은 전임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형적인 교회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목회자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1. 목회자가 교회의 도움 없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한 교회의 담임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을 종종 만납니다. 그분들은 이미 주님께 헌신을 했고, 또한 매우 유능한 목회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고, 그것은 성도들을 위해 소비되어야 할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매우 한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주변에는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목양의 일보다는 육신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보다는 각종 취미와 오락에 더 관심이 많은 자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목회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능히 목회자들이 매우 한가할 것이라는 추정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한가한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던 목양의 일을 대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말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신 32:10, 시 17:8) 아는 바와 같이 눈동자는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게 다루면 크게 손상을 입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되면 몸에 치명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중한, 안전하게 보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와 같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양의 일이 아닌 다른 일로 바쁘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회자의 사역에 협조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가 가르치는 것에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목회자가 여유롭게 사는 것에 대하여 시기하기도 하며, 가르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그 주변의 상황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목회자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유능한 목회자의 힘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충분하게 사역의 모든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 목회자의 설교가 날카롭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설교가 날카롭다고요? 분명히 그 목회자는 유능한 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검(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엡 6:17, 히 4:12) 만일 검이 무디어져 있다면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검은 날카로웠을 때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향해 전해질 때 만일 아픔을 느끼고, 마음 곳곳이 말씀에 의하여 잘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 목회자는 분명히 유능한 분입니다. 그분은 이미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갈고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의 주변에는 두 종류의 거짓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계속 말함으로써 귀를 즐겁게 하는 자이며,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사용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역자라면 당연히 성도들이 듣기에 날카로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이 설교자의 말씀이 자신에게 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하여 나는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포되는 말씀이 회중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질 만한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는 매우 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에게 제한을 두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가끔 성도들은 설교자에게 와서 이리이러한 설교는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역자와 교회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에 제한을 둔다면 그것은 기형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는 일은 당연히 사역자에게 일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사역자는 기도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에 유익한 것을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전하는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 교회 안에서 변질된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그들은 매우 신실하게 시작을 했으며,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아닌 기업과 같은 집단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의 운영이 변하는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으므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진리가 변질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서 진리가 변해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목회자에 의해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 진리의 변질은 성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회의 성장은 성도들에 의해서 목회자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경보다도 목회자를 더욱 신뢰하는 교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회자가 비 진리를 말해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성도는 목회자에게 비 진리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령 오늘날 교회들이 점차 가톨릭화 되어가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각종 의식을 교회 안에 정착시키고, 절기들을 지키고, 심지어 교회들이 교단화되면서 목회자로 하여금 명예를 얻도록 수십 억의 돈을 주면서 눈을 멀게 하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일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사회 단체에 기부하게 함으로서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는 행동들이 누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히려 목회자들이 한다고 말하더라도 말려야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성도들은 목회자를 협박해서라도 그러한 변질된 진리들에 대하여 교회 안에 정착시키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목회자들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봅니다. 가령 종전의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웠는데(이것은 한국교회에서만 있는 것임), 목회자가 성경적으로 옳지 못함을 발견하고 외우지 말도록 가르쳤을 때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항의를 하고 관철되지 않자 교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목회자가 전하는 진리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핍박을 면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목회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고수하려는 소수의 무리들은 언제나 핍박을 받아왔지만 그들은 스스로 넓은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동들은 때때로 목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결국 바른 진리를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를 봅시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는 약 100 년 동안 개역 성경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내용상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한국의 교회들은 대부분 이 성경에 기초해서 교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훌륭한 신학자들이 배출이 되고, 또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성경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급기야 바른 성경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성경을 쓰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다른 많은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바른 성경을 사용했을 때,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교리들이 많은 허점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흑시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겁 많은 목회자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그는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이는 만일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다면 바로 잡아야 할 책임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목회자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면 현재의 상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계속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목회자를 겁쟁이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진리를 말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그 일을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막고 있다면 이는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4. 성도들은 사역자의 시간을 빼앗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로로 인하여 병원에 누워 있는 목회자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유능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섬기는 일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누워 있는 동안에는 성도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성도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종종 과로로 인하여 사역을 중단하는 목회자들도 봅니다. 물론 그들은 매우 유능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쓰러진 것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주님 편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과로로 인하여 쓰러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당연히 성도들로 인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둔한 목회자라도 자신의 취미 생활과 오락을 하면서 피로해 하고 쓰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잦은 심방과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를 위하여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목회자의 시간을 빼앗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세월이 흐르면 영적으로 오히려 힘이 없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들은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요 5:39), 기도할 시간(행 6:4)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자연히 자신의 경험에 설교를 의존하게 되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민감해 짐으로서 바른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만족할 만한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성도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탓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바로 성도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많은 시간들을 빼앗음으로써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로 하여금 더욱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5. 사역자가 생계비로 인해 염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더욱 성경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목회자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하고, 또한 많은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고후 11:9).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하여 그 값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결코 자비량 목회를 권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목회자로 하여금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신실한 목회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목회자의 생계 문제에 대하여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터로 나가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 목양의 일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러한 것이 성도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의 생계비가 자신들의 생활과 무관한 것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만을 생각해도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활비를 쪼개어 제사장 지파인 레위사람들의 생계를 뒷바라지 했습니다. 12 지파가 1/10 을 드렸고, 또한 각종 드려진 헌물들을 그들이 먹도록 배려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또한 섬기는 자들이 최소한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물론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목회하는 자들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가당치 않은 주장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도 교회 안에 섬기는 자들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일에 전념하도록 그분의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도들은 그들의 생계를 뒷받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성도들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고전 9:4-12). 주님의 일을 맡은 목회자에게 책임이 부여된 것이라면 그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 역시 동일한 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목회자의 생계를 돌봐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는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6. 교회는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를 존경하며 그들을 따릅니다. 그들이 목회자를 따르는 방법은 비록 다르지만 그들이 목회자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신앙적으로도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따름에 있어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것들을 선물하고, 그들의 생활을 도우며, 그들이 사역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도움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행 12:5).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자, 베드로를 위한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는 천사의 손에 의하여 감옥에서 나왔고,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각 교회를 향해 보내는 서신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처럼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먼저 목회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만일 그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영적 침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중요한 무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로 하여금 매사에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기도하는 자가 목회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목회자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함으로써 사역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역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전혀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바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언제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12.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 - 헌신

나는 가끔 노련한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묻습니다. 목회자, 혹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나는 당연히 그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에 대하여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모두 동일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환경, 물질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반드시 뛰어난 언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헌신이라는 무기의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구제를 함에 있어서도 많은 물질이 더욱 많은 이들을 가난으로부터 건져내고 그들을 복음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코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물질도 헌신하고자 하는 자의 마음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헌신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 헌신은 단순히 전임사역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임사역을 하고 있다고 진정 "헌신"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라고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역을 하나의 직업으로서 생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샅군 목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참 목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주거니와"(요 10:11)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양된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목사, 혹은 목자(Pastor)로 호칭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 사역의 뒤를 잇는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사라는 명함을 들고, 전임사역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오직 목회만을 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엄청난 명예를 가진 것쯤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명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안디옥으로부터 복음전도자로 파송이 된 후에 그는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고후 11:23-27).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자신이 사역자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민을 보십시오. 그는 오히려 사역자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염려함이다”(고전 9:27)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제대로 헌신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헌신하지 못하는 목회자! 그는 주님 앞에서 아무런 오히려 부끄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역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사역자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2. 헌신은 결코 무작정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마약을 제조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가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칭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신에 대하여 말할 때에 그의 부지런함과 열심만을 가지고 진정한 헌신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부지런하고 매우 성실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목양의 일을 하는 자로서 바르지 못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세상적으로 무능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바른 진리 안에서 행동한다면 그는 분명히 많은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심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매우 게을러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분리주의자로 인식이 되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헌신의 기준은 바른 진리 위에 있어서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무작정 씨를 뿌린다고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헌신된 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만일 일하는 것이 주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헌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열심만으로 우리가 헌신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진리 위에 우리의 헌신을 더 할 수 있는 자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의 의미는 자신이 가진 은사들을 주님의 일을 위해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신이라는 용어가 결코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명백하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헌신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것이 모두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 모두가 자신과 같이 되기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교회의 지도자라면 결코 그렇게 되도록 힘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가 가진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헌신을 매우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의 방향을 잘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가진 은사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유능한 성도가 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유익한 것입니다. 주님은 목회자가 얼마나 자신이 가진 은사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에 평가기준을 두신 것이지 자신이 가지지도 못한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을 보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므나의 비유(눅 19:13-24)와 달란트의 비유(마 25:14-30)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자신의 몫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몫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제 것인 것처럼 사용하고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헌신은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로서 가진 은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께서서는 그를 써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주님께 드러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교회 내에서 심각한 열등감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칫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나 한 므나를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능, 혹은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들이 가진 것이 과연 주님께 과연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를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자가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이 렘돈, 즉 한 고드란트 드리는 것을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하셨습니다(막 12:42, 눅 21:2). 누가 헌신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몸이 약해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4. 헌신은 흉내 내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많은 세미나들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가는 목적은 한가지입니다. 보다 주님께 효과적인 헌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사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헌신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동일한 방법의 헌신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기도, 말씀, 찬양, 봉사, 구제 등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며 목회자들로 하여금 만능이 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목양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만능이 되고자 합니다. 그들은 성공한 목회자들의 모습을 닮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공한 이를 만나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흉내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이 발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물구나무 서서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그는 분명히 많은 땀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가 아무리 멋지게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두발로 걸어 다니는 것보다 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 아무리 잘 연습을 해도 두 발로 열심히 뛰고 훈련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코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바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으로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마치 두 손으로 걸어 다니려고 애쓰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반드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은사(선물)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덜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능들을 흉내 내려고 해서 안됩니다. 왜냐하면 몸의 지체들이 자신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몸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능력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은사들을 흉내 내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몸, 즉 교회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분명히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작고 약한 부분일수록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고전 12:22-23, 약 3:5). 그것은 때로 노력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눈이 좋아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또한 입이

커집니까? 아니면 코가 커집니까? 물론 수술을 하면 좋아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더욱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헌신을 흉내 내는 것은 바로 이렇게 수술을 한다거나, 혹은 자신의 역할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먼저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이 드러져야 합니다.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리고 남이 하는 것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가진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모범이 될만한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동일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전에 먼저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사(선물)들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어떻게 쓰셨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단 한 사람도 동일하게 쓰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흉내 내는 일에만 매달린다면 그는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5. 헌신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먼저 소유의 개념부터 다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문제에 스스로 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헌신했다는 자들이 재산의 문제를 놓고 분쟁하는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물질을 보상하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을 진정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는 결코 헌신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소유의 개념부터 제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넘기셨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며(창 14:22), 통치하시고 계십니다(계 1:5). 이 세상에서는 그분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창 1:27-28). 그들은 모든 것을 다스렸고, 그 안에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범죄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을 사탄의 권세 아래로 넘겨주었습니다. 사탄의 일시적인 지배 아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다스려야 할 자리를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값을 지불하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막 10:45). 누구든지 그분을 믿지만 하면 그분으로부터 소유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이 땅의 것들을 우리의 소유로 삼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장차 불 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먼저 이 땅에 대 환난이 있는 후 천년 왕국 시대에 보상으로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될 때에(계 21:1)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상속으로 땅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롬 14:8). 우리가 주님의 소유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유지시키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그분이 처음

만드신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님의 인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벧후 3:9).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헌신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를 주장하는 순간 주님은 그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헌신된 자들은 결코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아는 자이고, 또한 헌신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자신의 소유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전히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헌신한 자가 아닙니다. 헌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소유는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6. 헌신의 동기가 주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만일 사람을 보고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면 그는 곧 실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대상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헌신의 동기 또한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각종 집회나, 담임 목회자의 상담 등을 통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유나 아니면 스스로 판단해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주님의 일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민족마다 무속인(무당)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세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배워서 무속인이 된 학습무, 부모의 대를 이어 무속인이 된 세습무,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 무속인이 된 강신무가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무속인(무당)입니까? 당연히 강신무입니다. 사실상 학습무와 세습무는 가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세 종류의 목회자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학교에서 열심히 배워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아버지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신도 목회자가 되어 아버지의 목회를 세습합니다. 과연 이들을 진정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들 가운데는 진정한 목회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주님에 의해 세워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요? 물론 주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모세, 엘리야, 다윗...등 모든 자들이 주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심을 입은 이후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배워서 목회의 일을 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것을 변론하려 한다면 그는 분명히 샅군 목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많은 것을 배웠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역시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헌신은 분명히 이러한 부르심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부르심도 없는 자가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목회자로 헌신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과연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헌신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당신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